

보도시점 : 2026. 10. 21.(수) 11:00 이후(10. 22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21.(수)

항공 디지털 복합재난 대비해 국민안전 지킨다, 21일부터 이틀간 복합재난 대응훈련

- 항공관제시설 장애·항공기 사고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점검
- 전산망 마비에도 자동차검사·자격시험 등 필수 행정서비스 공백 최소화

- 항공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검사·자격시험 전산망이 마비 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 대응훈련이 실시(10.21.~10.22)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, 이하 TS)은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산불과 정전으로 인한 정보 통신실 화재 및 핵심 정보시스템 마비 상황을 가정한 디지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.
- 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, TS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, 한국국토정보 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한다.
- 훈련은 TS 본사 인근 산불로 가공전선이 단선되고 정전이 발생한 데 이어, 비상발전기 과부하로 정보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과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.
-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 초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,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시스템별 업무연속성계획(BCP)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.

- 특히, 자동차검사 업무의 오프라인 전환과 수기 처리,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, **대국민 상황 안내** 및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 등 핵심 업무별 대체절차를 점검해 정보시스템 장애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인한다.

□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(사장 김원준)는 10월 22일(목) 오후 2시 김해공항에서 「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」을 실시한다.

- 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, 부산지방항공청, 한국공항공사, 항공사, 공군, 소방, 지상조업사 등 총 22개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다.
- 과거 실제 재난사례 등을 바탕으로, 악기상 상황에서 김해공항 접근관제 시설*의 주·예비 시스템이 연이어 장애를 일으켜 관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, 이후 항공기 재난(사고)으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**을 가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.

* (접근관제시설) 항공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항공교통관제시설

** ①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 → ② 비상대응체계 가동 → ③ 관제서비스 중단 → ④ 항공기 재난(사고) 발생 → ⑤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습

- 국토교통부는 재난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위기경보 발령과 상황관리,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을 총괄하고, 항공기 운항 및 비상관제 대책과 연계한 대응체계가 적기에 가동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.
- 특히, 위기경보 단계(관심→주의→경계→심각)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중앙 사고수습본부 및 현장·지역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점검하고,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두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 확산 방지, 시설·시스템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반영해 관련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.

-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“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서,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
- “이번 관계기관 합동 통합·연계 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다지겠다”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“금번 훈련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28개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,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가재난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국토교통부	정보화통계담당관 (디지털 재난)	책임자	과 장	유신근 (044-201-3265)
		담당자	서기관	권영진 (044-201-4127)
			주무관	김보성 (044-201-3272)
	항공안전정책관 항행위성정책과 (항공 재난)	책임자	과 장	오송천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	장기영 (044-201-4360)
			주무관	신수용 (044-201-4362)